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언론정보학석사 학위논문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이용이 반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
: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중심으로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金 小 铃

국문초록

중국인 유학생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반한 감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반한 감정의 원인을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함께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한국에 대한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접촉 가설, 그 확장으로 제기된 준 사회적 접촉 가설에 기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구분해 각각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변인,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한국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모델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1】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서울 및 지방 소재의 38개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354부의 설문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한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인 지지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인터넷 이용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터넷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인터넷 이용은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셋째,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한국인의 정서적 지지 정도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가 갖는 함의는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감정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라는 현상과 관련하여 탐색하고 설명하였다는 점과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반한 감정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소수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의 관계를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특수집단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주요어: 미디어 이용, 대인 커뮤니케이션, 적대적 미디어 지각, 반한 감정

학번: 2010-23986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본 논문의 구성	7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9
제1절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연구.....	9
1.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기원 및 발전.....	9
2.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요인	11
3.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심리적 매커니즘.....	15
4.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	17
5. 소수자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 및 그 효과.....	19
제2절 반한 감정	23
1. 반한 감정 및 그 형성 원인	23
2. 중국인 유학생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반한 감정	26
제3절 접촉 가설과 준 사회적 접촉 가설	28

1. 접촉 가설	28
2. 준 사회적 접촉 가설.....	32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35
제1절 연구문제.....	35
제2절 연구모형.....	38
제4장 연구방법	40
제1절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절차.....	40
제2절 주요 변인의 구성과 측정	41
1.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량.....	42
2.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43
3. 적대적 미디어 지각	45
4. 한국에 대한 태도.....	46
5. 한국에 오기 전 태도.....	48
제3절 자료분석 방법	49
제5장 연구결과	50
제1절 주요변인에 대한 검토	50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검토.....	50
2. 미디어 이용에 대한 검토.....	53
3.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검토.....	55
4.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검토.....	56
제2절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57
제3절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논의.....	63
1. 【연구문제1】 과 【연구문제2】 의 분석 결과 및 논의.....	63
2. 【연구문제3】 , 【연구문제4】 , 【연구문제 5】 의 분석결과 및 논의.....	67
제6장 결론.....	73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73
제2절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75
1. 연구문제1에 대한 결론.....	75
2. 연구문제2에 대한 결론.....	76
3. 연구문제3에 대한 결론.....	77
4. 연구문제4에 대한 결론.....	77
5. 연구문제5에 대한 결론.....	78
6. 종합적 결론.....	79

제3절 본 연구의 의의	82
제4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84
참고문헌.....	87
부록 1 < 한국어 버전 설문지 >.....	96
부록 2 < 중국어 버전 설문지 >.....	104
Abstract	111

표 목차

<표 4-1> 한국인의 정서적 지지 측정 문항.....	44
<표 4-2> 중국인의 정서적 지지 측정 문항.....	45
<표 4-3>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측정 문항.....	46
<표 4-4> 한국에 대한 태도의 측정문항.....	47
<표 4-5> 한국에 오기 전 태도의 측정문항.....	48
<표 5-1> 중국인 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기술통계치 I	51
<표 5-2> 중국인 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기술 통계치 II.....	52
<표 5-3> 미디어 이용 변인의 기술통계치.....	55

<표 5-4>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의 기술통계치	56
<표 5-5>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59
<표 5-6> 커뮤니케이션 행위 및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62
<표 5-7>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	66
<표 5-8>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에 대한 태도.....	72

그림 목차

<그림1>.....	39
------------	----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올해는 한중 수교 20년이 되는 해이다. 20년 동안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는 한국에 증가하는 중국인 유학생 수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전체 유학생수는 88,468명인데 그 중 중국인 유학생수는 65,271명으로써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이 수치는 10년 전인 2002년 재한 중국인 유학생 수인 5812명에 비해 무려 10배를 초과한 수치다(2002,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이처럼 10년 사이 중국인 유학생 수가 급속히 증가한 원인은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한류'의 영향력이 크게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간 교류가 증가하여 우호정서가 강화되는 반면, 부정적 정서 역시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인 유학생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추세라고 한다(이은규, 2010). 한국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유학 온 학생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안고 귀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친한 인사로 활동해야 할 유학생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실

시한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연구’ (구자역, 2010)를 보면, 국내 체류 중국인 유학생 1,2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이들의 약 41%가 반한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반한 감정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류기간 3~4년인 유학생 중 57%가 반한 감정이 있다고 답했다.

중국인 유학생들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한 감정이 심각해 질 경우,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해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유학생들은 귀국 후 대다수가 한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반한 감정이 형성된다면 한중 양국 관계에 있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감정을 방지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했던 적이 있는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중국인들의 반한 정서 형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유학생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창’ 과도 같아 한국에 와보지 못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유학생들의 경험담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한 감정의 근거지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의 형성은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이 인터넷에 쓴 글에서 시작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구자역, 2010). 특히 ‘협한론’의 주역이 다름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중국제품을 쓰레기처럼 취급한다’ 등 그들의 경험담이 인터넷을 돌고 돌아 중국 네티즌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아예 한국 유학을 오려는 중국 친구들에게 ‘한국에 오지 말라’고 충고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에 와봐야 배울 것도 없고, 중국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유학생이 적지 않다(김주명, 2008). 이는 중국 내에서 친한

세력이 되어야 할 유학생들이 오히려 반한 정서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셈이다.

그렇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한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가?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형성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주요한 원인은 “한국 언론의 왜곡보도”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한 감정을 느끼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보도가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왜곡하여 보도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또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 때문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형(2010)의 연구에서도 한국 언론의 왜곡보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 TV에서 ‘짜퉁 천국’, ‘인권이 없는 나라’로 중국을 표현하며 한국 언론매체가 한국인들에게 중국의 부정적인 면만 주입시키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으며 중국인도 한국이 싫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미디어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실제 한국 미디어는 과연 중국 또는 중국인을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 미디어의 중국관련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왕천(2012)은 한국의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의 중국관련 뉴스를 분석한 결과, 특정 사안에 대해 편중되어 있는 현상은 존재하나 중국관련 보도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다고 밝혔다. 왕리리(Wanglili, 2012)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일보에 나타난 중국관련 기사의 보도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보도태도, 부정적인 보도태도, 그리고 중립적인 보도태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도된 뉴스의 건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도된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한국 언론에 대한 전체적 평가를 이상의 두 연구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미디어가 과연 편향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미디어의 측면에서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 수용자의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즉, 한국 언론 보도의 보도 편향 문제가 아닌 중국인 유학생의 측면에서 어떻게 한국 미디어의 기사나 보도를 지각하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행태, 또는 미디어 이용이 한국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김선남, 2008; 이수범·김동우, 2008; 임지혜·최정화, 2009).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미디어와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위에서 기술했듯,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미디어에 대한 인식 문제는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인들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나아가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반한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한국 미디어가 중국을 보도 할 때 부정적이고 왜곡되게 보도한다는 인식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뉴스보도에 대한 편향된 지각(Giner-Sorolla & Chaiken, 1994)을 지칭하는데 뉴스보도의 객관적인 편향성 여부와는 별개로 수용자가 어떤 이슈에 대해 강한 의견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에 대한 보도가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우쳤다고 인식하는 현상을 지칭한다(Perloff, 1989; Vallone, Ross & Lepper, 1985).

적대적 미디어 지각 개념을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 적용해 보았을 때,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 즉 중국관련 보도에 주목하게 되고 다른 수용자에 비해 보도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인들이 느낄 수 있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가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낳고,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인들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알아가고 적응한다. 한국인과의 직접적 접촉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매개된 경험이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통로일 것이다. 우선, 한국인과의 접촉은 새로 접하게 되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에 대해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국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 지녔던 기존의 태도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모할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다른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이론으로서 올포트(Allport, 1954)가 제기한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접촉가설에 따르면 다른 집단 구성원과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어 기존의 상대 집단에게 가졌던 편견(prejudice)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대인 접촉이 타 집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유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 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감정에 기반하고 있을 경우, 대인 접촉은 오히려 부정적 태도를 강화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Harwood, 2010). 중

국민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인과의 대인 접촉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이 있었거나 한국인들과의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서 반한 감정의 형성 원인으로까지 작용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매스미디어 이용 역시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비슷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데 미디어 이용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간접 경험으로 볼 수 있다는 준 사회적 접촉 가설(parasocial contact hypothesis)에 따르면 미디어 속 인물들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그 집단에 대해 알아가고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Schiappa, Gregg & Hewes, 2005). 미디어 이용은 대인 커뮤니케이션보다 부담감이 덜하고 외국인들의 제한된 생활환경을 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대인 채널로 충족되지 않는 영역의 적응을 돕는 보완재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창현, 2000;곽정래 · 박승관, 2006)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태, 적대

적 미디어 지각, 그리고 한국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2절 본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기원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관련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요인에 대한 논의와 특정 집단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연구와 적대적 미디어 지각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반한 감정의 형성 원인과 중국인 유학생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 현상과 반한 감정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대한 태도의 형성과 관련한 연구와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 논의를 전개시켰다.

제3장은 제2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화시키고, 그러한 연구문제를 설정한 근거를 설명한 후 중국인 유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 및 한국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을 서술하였다. 연구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조사방법 및 표집 절차를 소개하고, 주요변수의 척도 구성 방식에 대해 살펴본 후 자료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명시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요 변인의 기술적 특성을 서술하고, 통계적 기법들을 이용하

여 연구모형을 탐색한 후 탐색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였다. 또한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제시한 후 연구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결과의 함의에 대해 논한 후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제1절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연구

1.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기원 및 발전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는 특정 이슈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슈에 관련된 기사가 자신의 입장과 반대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발론, 로스, 레퍼(Vallone, Ross, & Lepper, 1985)의 연구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발론 등(Vallone et al., 1985)은 갈등적 이슈로서 레바논 전쟁에 관한 13분 분량의 텔레비전 뉴스가 담긴 비디오를 각각 친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 아랍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결과, 같은 내용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본 두 집단 모두가 기사가 자신의 입장과 반대인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발론 등(Vallone et al., 1985)은 뉴스 보도 편향은 개인의 지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뉴스 보도의 편향이 발생하는 문제를 기존의 미디어의 측면에서만 고려하던 것을 미디어를 수용하는 개인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때부터 수용자의 지각 차원에서 뉴스 편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논쟁적 이슈를 둘러싸고 실험연구와 서베이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시도했다. 중동지역의 분쟁이라는 동일한 논쟁적 이슈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실험연구(Giner-Sorolla & Chaiken, 1994; Perloff, 1989), 이어서 미국의 운수업체인 UPS의 파업사태(Christen, Kannaovakun, & Gunther, 2002)와 실험목적의 동물 사용(Gunther, Christen, Liebhart, & Chia, 2001), 유전자 변형식품(Gunther & Schmitt, 2004) 등 다양한 논쟁적 이슈를 주제로,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를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갈등적이지 않은 이슈에서도 적대적 미디어 효과가 발견되었는데 대통령 선거(Dalton, Beck, & Huckfeldt, 1998; Huye & Glynn, 2010)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 현상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념의 확장으로 상대적인 적대적 미디어 지각(relative hostile media perception)을 제기하게 된다(Gunther 외, 1992). 상대적 의미에서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미디어 내용에 대해 그 기사가 상대방보다는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특정집단이 뉴스를 적대적으로 지각하거나 혹은 뉴스의 관점이 자신의 관점보다 상대방의 관점에 더 일치 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모두를 가리키는데 견서 등(Gunther et al., 1999, p.313, 오택섭 등 2008에서 재인용)이 주장했듯, 미디어 편향성에 대한 지각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미디어 보도를 적대적으로 보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집단(예컨대 관여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혹은 여론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동일한 보도 내용을 각자의 입장과 비교해 보다 적대적이라거나, 혹은 덜 호의적으로 다룬다고 지각하는" 점, 즉 적대성에 대한 상대적 평가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견서 등(Gunther et al., 2001)은 상대적인 적대적 미디어 효과는 같은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게 했고 편향된 지각에 대한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제기했다.

2.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요인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효과가 검증되면서 연구자들은 보다 정교하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탐색을 해왔다. 따라서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유발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밝히는 시도들이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 이슈 관여도, 정보원을 꼽을 수 있다.

1) 이슈 관여도

기존 연구에서 관여도는 주로 당파성 혹은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의 극단성으로 정의되는데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 혹은 이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Gunther et al., 2009; Schmitt et al., 2004, 이은주 2011에서 재인용). 즉 어떠한 이슈에 대해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 더 편향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첫 번째 예로써 미국의 운수업체인 UPS의 파업사태(Christen, Kannaovakun, & Gunther, 2002)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1997년 미국의 운수업체인 UPS의 파업 관련 보도에 대해 UPS의 경영진과 노조간부들은 파업 관련기사가 각기 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편향돼 있다고 보는 반면, 이슈관여도가 낮고 파업에 대해 중립적인 대학생들(통제집단)에게서는 자신의 의견과 기사의 편향지각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Christen, Kannaovakun, & Gunther, 2002).

후속 연구에서는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건서 등(Gunther et al.,

2001)은 동물 실험 이슈에 관한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 모두에게 같은 동물 실험에 대한 찬, 반 양론이 균일한 기사를 보여주었다. 결과, 그 기사가 중립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혹은 반대 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기사가 자기와는 반대쪽 입장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의견이 강할수록, 즉 찬성에 대한 의견이 강하거나 반대 의견이 강한 사람일 경우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강하게 나타나 이슈 관여도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증폭시키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관여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짐에 따라 연구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은주(2011)의 연구에서는 관여도를 이슈에 대한 관심 혹은 개인적 중요성으로 정의하고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조절변인으로써의 기능을 알아 본 결과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관여도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 또는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했던 기존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건서(Gunther, 1992)의 연구에서의 관여도는 집단 정체성을 의미했다. 그는 집단 구성 성원(group membership)의 집단 정체성(group identification)이 당파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 주장했는데 그 원인인즉 집단 정체성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관여도 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 예를 들면, 천주교신자, 기독교신자,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히피안, 아프리카 계 미국인집단을 대상으로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상술한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보도에 더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서(Gunther, 1992)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유학생의 집단 정체성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조건으로 가정한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집단 정체성은 중국 또는 중국인 관련 보도에 대해 더 주목하게 되는데, 중국인으로서의 높은 관여도, 즉 집단 정체성으로 인해 중국 관련 기사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보고, 한국 미디어의 중국관련 보도가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각하게 된다고 추론 가능하다.

2) 정보원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매스 미디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연구 결과는 여러 실험연구에서 입증된 바이다. 즉, 정보원이 역시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가 발생하는 전제로 작용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에서는 비 매체(non media)상황에서는 적대적 미디어지각 효과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건서와 슈미트(Gunther & Schmitt, 2004)는 정보원이 매체(media)인가 또는 비매체(non-media)인가에 따라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동일한 메시지를 신문 기사 혹은 학생이 쓴 논문이라고 하고 피험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신문 기사라고 생각하고 읽은 집단에서만 주어진 정보가 본인의 의견과 반대 방향으로 편향되었다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발견되었고 학생의 논문이라고 읽은 집단에서는 같은 메시지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심지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을 지각한 도달범위(perceived reach)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면 도달범위가 낮은 경로(low-reach channel)는, 즉 수용자가 없거나 적을 경우, 사람들이 왕왕 메시지에 대해 좋게 인식하며, 피험자들이 메시지가 자신의 입장과 일치한 것으로 지각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로 도달범위가 넓은 경우, 예를 들어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방송과 같은 넓은 수용자를 갖고 있는 경우, 미디어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용자들이 받게 되는 영향력을 우려하게 되어, 중립적이고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기사들도 매스미디어를 통해 받아드리면 편향되거나 비호의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건서(Gunther & Liebhart, 2006)의 후속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는데 같은 기사를 도달범위가 다른 정보원, 즉 기자가 썼을 경우와 학생이 썼을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한 메시지를 기자가 썼다고 했을 경우 피험자들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 정보원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유발하는 전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한국 상황에서도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발견되었는데 오택섭과 박성희(2005)는 건서(Gunther et al., 2001; Gunther et al., 2002)의 모형에 기초하여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를 한국의 언론 상황에서 검증했다. 기존의 정보원을 매체 대비 매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선일보, 한겨레, 미디어다음, 학생으로 세분화 한 후, 찬반 양론을 동등하게 다룬 ‘인재할당제’에 관한 기사를 각각 서로 다른 정보원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그 결과, 정보원에 따라 피험자의 반응은 달리 나타났는데 적대적 지각은 할당제 관련 기사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피험자가 인식하는 정보원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적대감의 대상은 ‘메시지(기사)’가 아니라 그 메시

지를 실어 나르는 ‘메신저(언론사)’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동일하고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정보원에 대한 인식에 따라 메시지의 편향 여부를 판단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한 메시지가 중립적인 타인에 대해 각기 다른 영향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황치성(2007)의 연구에서는 적대적 편향 지각은 개인이 비호의적 태도를 가진 신문, 즉 평소에 잘 읽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에서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문을 읽었을 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호의적 신문을 읽었을 때뿐 만 아니라 호의적 태도를 가진 신문, 즉 평소에 자주 읽고, 신뢰하며, 이데올로기적 성향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신문을 읽었을 때도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나타났으나 지각하는 편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적대적 미디어 지각 현상은 기사뿐 만 아니라 기사를 쓴 기자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 그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기자들에 대한 판단 역시 자신의 입장에 근거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3.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심리적 매커니즘

이슈 관여도와 정보원 등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유발하는 요인 뿐만 아니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심리적 매커니즘 역시 정교화 되어 왔는데, 사회적 판단이론(theory of social judgment)의 대조효과(contrast effects)로 설명이 가능하다(Granberg, 1993). 사회적 판단이론은 같은 메시지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인데 사회적 판단이론에 따르면 개인에 따라 같은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개인이 메시지를 받아 들이는 태도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사람마다의 태도 영역은 수용 영역(latitude of acceptance), 거부 영역(latitude of rejection), 그리고 비개입 영역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개인의 준거점에 근거하여 세 가지 영역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 의견의 세기가 강한 사람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영역이 좁아지게 되어 자신과 메시지의 거리를 실제보다 멀게 지각하게 되는데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이러한 대조 편향(contrast bias)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조 편향은 구체적으로 선택적 기억(selective recall), 선택적 범주화(selective categorization), 차별적 기준(different standards)을 통해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선택적 기억은, 이슈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보에 더 주목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신과 일치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한 기억이 더 현저해지게 되어 전체 미디어에 대해 부정적인 편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선택적 범주화는 개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거부 영역'에 위치시킴으로써 적대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차별적 기준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중립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자신의 입장에 근거하여 그 중요성이나 객관적인 사실 여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메시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의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미디어의 중국 관련 뉴스나 보도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보도한 건수가 오히려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미디어의 중국관련 보도가 부정적이라 지

각하고 있는데 이는 선택적 기억,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인 중국 또는 중국인 관련 보도 중에서, 부정적인 기사나 뉴스에 대해 더 주목하게 되어 부정적인 뉴스에 대한 기억이 현저해져 한국 미디어에 대해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나타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이 아닌 사람이 보았을 때 충분히 객관적인 뉴스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일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보도의 '수용 영역'이 좁아지게 되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뉴스를 '거부 영역'에 위치시킴으로써 보도가 중국인들에게 불리한 것이라 지각할 수 있는 선택적 범주화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보도 기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한 보도가 기타 다른 내용을 다룬 기사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관련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여 인지하는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 관련 보도에 대해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

지금까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유발하는 미디어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연구한 이블랜드와 샤(Eveland & Shah, 2003)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 등의 뉴스 편향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사람들의 대인적 환경(interpersonal environments)이 여론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미디어 편향에 대한 판단에도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론을 유추하는데 정치적으로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일 수록 여론도 자신과 같은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뉴스 미디어가 편파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신의 의견과 상이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접할수록 미디어 보도에 대한 편향성 지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 언론이나 방송에 대해 가지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의견이 비슷한 중국인 유학생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데, 그것은 같은 의견을 가진 중국인들끼리 자주 대화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자신의 입장과 같을 것이라 인지하게 되어 미디어가 중국, 또는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보도한다고 생각하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 정도가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 한국인들과 자주 대화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한국 미디어가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편향되게 보도한다는 편향된 지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한 커뮤니케이션 요인으로서 미디어 이용을 검토한 연구들이 있다. 츠파티(Tsfati, 2007)는 미디어 이용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알아보았다. 그는 아랍인들의 이스라엘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모국 미디어인 아랍 미디어 이용과 거주국 미디어인 이스라엘 미디어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랍인의 이스라엘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이스라엘 미디어 이용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랍 미디어 이용이 많아질수록, 즉 모국

미디어 이용이 증가할 수록 이스라엘 미디어가 아랍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2012)의 연구에서는 모국미디어 이용이 불가능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미디어의 이용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미디어 이용은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지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모국 미디어 이용과 한국 미디어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유학생은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이용을 활발하게 하는 젊은 세대임을 고려하여 그들의 미디어 이용 행위와 적대적 미디어 지각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색적인 수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즉 중국인 유학생의 중국 미디어 이용과 한국 미디어 이용에 따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 소수자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 및 그 효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소수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기존 연구에 근거하면, 소수자들은 자신이 속한 기사나 보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안토 등은 (Ariyanto et al., 2007)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교도들과 기독교신자들에게 두 집단 사이의 충돌을 기록한 기사를 보여주었는데 기독교인 집단은 이슬람교도집단에 비해 미디어가 상대 집단에 편향되어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자에 비해 기독교신자는 인구나 정치적 세력으로 보았을 때 소수자에 속하는데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며 기독교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미디어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고 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미디어에 대한 편향된 지각은 다수자보다 소수자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집단 내 소속된 구성원이라 할 지라도 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달리 나타났는데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집단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같은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 중, 집단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특정 집단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 현상은 또한 미디어에 대한 편향된 지각과 그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대한 연구들을 위주로 많이 다루어졌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사회적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그 현상 자체뿐 아니라 그러한 지각이 여론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사안이나 관련 이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유발한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여론에 대한 인식은 '추정된 미디어의 영향력(perceived media influence)', 또는 '가정된 미디어의 영향력(presumed media influence)'이라는 지각을 통해 여론을 예측한다. 즉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미디어 내용이 미디어가 가진 영향력 때문에 많은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며 따라서 여론 역시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하게 된다는 것이다(Gunther et al., 2009; Gunther & Liebhart, 2006; Gunther & Christen, 2002).

우선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추정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예측이 더해졌을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탐구한 브룩 등(Brooke et al., 2012)의 연구를 살펴보자. 북캐롤라이나 시민들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라틴

계 이민자와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한 반 이민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디어 보도가 자신과는 반대되는 입장, 즉 이민자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반 이민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디어 보도가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강한 반 이민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추정된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 수록 보도가 이민자에 대해 호의적이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트만과 타니스(Hartmann & Tanis, 2012)의 연구 역시 주목해볼 만하다. 낙태에 대한 찬반 양론을 균형 있게 다룬 기사를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모두에게 보여주고 기사에 대한 태도를 물었다. 그 결과, 낙태를 찬성하는 집단이나 낙태를 반대하는 집단 모두 신문기사가 자신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판단하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집단에 비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생각할 경우, 즉, 낙태를 반대하는 집단이 자신들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불리하다고 지각한 경우,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소수자들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집단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츠파티 등(Tsfati & Cohen, 2005; Tsfati, 2007)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추정과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들을 탐색해 왔다. 츠파티와 코헨(Tsfati & Cohen, 2005)은 가자 지구(the gaza strip)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에 대해 탐구했다. 당시 이스라엘 수상이 가자 지구 유대인 거주자들을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이라고 지각하는 적대적 미디어지각

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미디어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미디어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거주자들이 강제 철거에 대한 결정에 저항하는 의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츠파티(Tsfati, 2007)의 후속 연구에서는 이스라엘 거주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미디어가 아랍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지각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주류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여론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은 그들의 주류 사회에서의 삶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내 북한 이주민을 상대로 한 민영(2012)의 연구에서는 북한 이주민의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지각은 한국인들의 북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 즉 여론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그들의 한국에서의 소외감에 영향을 주며 한국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정 집단, 특히 소수자 집단에서는 자신들이 처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 또는 주류 미디어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지각이 발생한다. 중국인 유학생일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소수자 집단에 속하며 스스로 느끼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그들에 속한 집단의 미디어 보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지각한 부정적인 뉴스는 그 실제 편향과 객관성과는 관계 없이 주류 미디어인 한국 언론에 대해 적대적 지각을 형성할 수 있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보도의 적대적 지각은 또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미디어의 강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반 여론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반한 감정

1. 반한 감정 및 그 형성 원인

중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와 더불어 유학생들 속에서 형성되는 반한 감정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반한 감정은 양국 언론에서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김선남, 2007; 이수범·김동우, 2008; 임지혜·최정화, 2009)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정서나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아직 반한 감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반한 감정은 일본에서 보다 먼저 나타났는데 '혐한(嫌韓)'이라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일본의 혐한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정의를 내리자면 '반한 감정'이란 대한민국·한국문화·한국인 등의 한국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불신, 반감, 경계, 분개, 심지어 적대시하는 부정적 또는 적대적인 감정을 말한다(이만, 2009).

반한 감정은 학계에서 반한류와 혼동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나타난 시기도 다르고 그 형성 원인도 다르다.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반한류는 한국 문화와 한류에 대한 반감, 혐오하는 감정을 지칭(박수옥, 2009)하는 것이라면 반한 감정은 한국이나 한국 문화 또는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시하는 감정을 말한다. 우선 시기적으로 볼 때, 반한류와 반한 감정은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반한류는

2005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부 중국 영상업계의 관계자들이 한류의 유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후반 이후부터는 '반한 감정'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단어가 한중 양국 언론 매체에서 빈번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반한 감정'이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져 나가게 되었으며 2008년 9월 한국 언론이 중국 내 반한 감정에 대해 다룬 기사가 중국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러한 개념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반한류와 반한 감정의 형성 원인 또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한 감정은 반한류와는 달리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반한류'의 원인을 한류의 흥행으로 인한 자국문화 산업의 발전에 대한 위협을 느낌으로써 생긴 중국의 견제에서 찾을 수 있다(윤경우, 2006; 이은숙, 2005), '반한 감정'은 역사문제와 문화갈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강내영(2008)은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중국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항한류' 원인 중에 양국간 발생한 역사문제와 문화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반한 감정과 재한 중국인의 반한 감정의 원인 역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구자역(2010)의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반한 감정을 다룬 첫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심층면접을 통해 반한 감정의 원인으로 한국언론의 왜곡보도, 중국인 차별과 무시, 미국 및 일본 선호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언론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주입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소 중국인으로서 차별과 무시를 당해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반감이 생긴다고 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선호하고 중국 및 기타 개발

도상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배척하는 태도 역시 반한 감정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감정이 중국 내에서 형성되는 반한 감정과 구별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한 정서가 중국 내에서의 반한 정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 근거하면 유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였다가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좋지 않은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중국 관련 기사와 댓글들을 번역하여 퍼 나르게 되는데, 번역과정에서의 기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대량으로 유포되어 그것을 본 중국인들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나아가 자국에서 반한 정서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구자역, 2010). 이렇듯,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유포할 경우, 중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한 정서는 중국 내에서의 반한 정서를 형성, 또는 확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중국인의 반한 감정에 대해, 그 형성 원인이나 현상으로부터 보면 반한 감정은 한국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이며 한국에 대한 불만, 적대감, 한국을 싫어하는 느낌과 태도,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감정은 한국 언론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태도와 중국인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한국인의 배타적인 태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인 유학생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반한 감정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 언론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되게 보도한다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지각은 반한 감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미디어에 대해 편향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는 중국관련 보도가 상대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왕리리, 2012; 왕천, 2012)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언론의 중국관련 보도를 왜곡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뉴스 내용과 보도의 문제가 아닌 수용자의 지각에서의 편향문제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이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발견하게 된 계기와의 일맥상통하다. 즉, 미디어의 보도와는 관계 없이,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관련 보도나 기사를 수용함에 있어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부정적 기사나 보도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그 이유인즉, 중국인 유학생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데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소수자들의 주류사회 미디어에 대한 지각을 둘러싸고 논의가 되어왔다. 소수자들의 미디어 수용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소수자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보도를 지각할 때 다수자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 관련된 뉴스 보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McAneny, 1994). 예를 들어, 흑인들은 미국 미디어에서 교수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속 자신들의 이미지가 '실제와는 다르다' 고 느끼거나 또는 미디어 속 흑인에 대한 묘사

가 '정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ujioka, 2005). 또한 소수자는 미디어 속 자신들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후지오카(Fujioka, 2005)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흑인들은 미디어 속 자신들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흑인들은 미디어 속 자신들의 이미지가 실제 흑인의 이미지가 아니며 미디어가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흑인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흑인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미디어 속의 흑인의 이미지가 공중이 인식하고 있는 흑인들의 이미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 (Inniss & Feagin, 1995, Fujioka, 2005에서 재인용). 흑인 시청자들은 그들의 미디어 속 이미지가 백인들이 흑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실생활에서 백인과의 상호 교류에서의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예측하기도 한다(Jhally & Lewis, 1992).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 역시 추정된 미디어의 영향력과 함께 한국 여론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중국인의 경우, 한국 미디어가 중국을 보도 할 때 정확하지 않고, 부분적이고, 편파적으로 보도한다고 지각하는데, 미디어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이 한국인들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각하게 된다.

소수자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또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소수자의 적대적 지각은 주류사회에서의 소외감(Tsfati, 2007; 민영, 2012)을 형성하여 소수자들의 삶에 대한 무력감을 높이었고,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따라 소수자 정책에 대한 지지 태도(Fujioka, 2005)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불리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지각은 전체 미디어

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 정책적 사안에 대한 저항(Tsfati & Cohen, 2005)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다양한 효과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에서 밝혀졌듯이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은 한국 언론이 부정적이고 왜곡된 보도라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수자로서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은 반한 감정의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론한다. 종합하여 맥락을 이해하자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인들이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여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판단은 중국인 유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반한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추론 할 수 있다.

제3절 접촉 가설과 준 사회적 접촉 가설

1. 접촉 가설

유학생을 포함한 이주민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새롭게 적응 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미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사전적으로 이주민은 "다른 지역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지역"이라는 의미를 "국가"로 생각한다면 이주민의 범주에는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물론이고,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인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양혜승, 2011). 이주민은 한국인과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한국을 알아가고 한국이라는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따라서 이주민의 커뮤니케이

선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나 능력이 한국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탐구했다(조창환·성윤희, 2012; 곽정래·박승관, 2006; 이창현, 2000; 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등). 이주민 중,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주목한 연구는 흔하지 않으며,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는 더구나 적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들 속에서 나타나는 반한 감정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한국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는데 유학생들의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대인 접촉이 타 문화에 대한 감정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이 있다. 접촉가설의 주창자인 올포트(Allport, 1954)는 다른 집단 구성원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서로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을 통해 기존의 상대 집단에게 가졌던 편견(prejudice)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타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인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접촉 가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접촉하는 집단 간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둘째, '집단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 '협력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타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접촉 가설은 초기 미국 인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그 뒤로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에서 종교적, 정치적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지지를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를 들 수 있는데, 흑인과의 개인적 접촉이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함을 밝혔다(Mastro & Tropp, 2004; Stein, Post & Rinden, 2000; Welch & Sigelman, 2000). 페티그루와 트롭(Pettigrew & Tropp, 2006)은 515편의 실증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집단과의 접촉은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개인과의 접촉효과는 심지어 접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에게까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헤일(Hale, 1997)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지식이 없고 개인적 접촉이 적은 대학생일수록 노인에 대해 더 강하고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와의 개인적 접촉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정신질환이 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Phelan & Link, 2004). 국내 접촉가설에 대한 연구로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개인적 접촉이 그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감소하고 문화교류에 대한 태도를 보다 개방적으로 만들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정연구 등, 2008). 이주민의 이주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양혜승(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대한 태도에 이주민 개인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 즉 한국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고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반면에 모국 사람과의 대화시간은 적을수록 한국사회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하지만 대인 접촉이 꼭 다른 집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만을 유인한다고 단정 짓기엔 어렵다. 집단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부정적 감정이나 갈등에 기반하고 있다면 대인 접촉은 오히려 부정적 태도를 강화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Harwood, 2010). 한국인의 미국인과의 접촉이 미국인과 미국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서 각각 알아본 결과, 미국인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한국인들이 미국인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수록, 즉 더 빈번하게 만날수록 미국인과 미국 문화에 대한 행동적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인과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었거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Cheongmi Shim et al., 2012). 이준웅(2003)의 연구에서는 중국인의 한국 문화상품 이용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했다는 것과 달리 한국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한국에 대한 이해와 동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을 많이 만날수록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나타났다.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의 대인접촉이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항상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한국인과의 접촉 가운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함은 오히려 한국인과의 대인 접촉을 꺼리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인과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한국인들에게서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경험은 기존에 지녔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인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도 중요하지만 대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 또한 중요할 것이라 추측한다.

2. 준 사회적 접촉 가설

한편, 유학생이 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를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미디어의 이용은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는 것들을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대인채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대인채널을 운영할 만큼 현지 커뮤니케이션 관행에 익숙하지 못한 초기에는 대인채널보다 부담이 적은 매스미디어를 선호하게 된다고 했다(김현주 등, 1997).

타 문화의 대중미디어 이용이 그 문화에 대한 감정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접촉가설에서 발전된 준 사회적 접촉가설(parasocial contact hypothesis)로 연결될 수 있는데 매개된 접촉(mediated contac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준 사회적 접촉가설은 접촉 가설에서 발전되어 왔는데 초기의 접촉가설은 서로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의 대인 상호작용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접촉가설의 발전과 더불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직접적 개인 간 접촉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의 접촉도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 미디어를 통한 접촉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2005년, 시아파와 그의 동료들(Schiappa et al., 2005)은 준 사회적 접촉가설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가설에 근거하면 미디어 속에서 타 집단에 대한 묘사에 노출되는 것은 그 집단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그 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미디어 등장인물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접촉과 마찬가지로 그 등장인물이 속한 집단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고, 해당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 사회적 접촉 역시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이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접촉가설과 같은 효과에 도달하게 된다

는 견해이다. 즉 준 사회적 접촉가설은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에서 보여준 타 집단에 대한 묘사를 관찰함으로써 그 집단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미디어를 통한 접촉이 타 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준 사회적 접촉가설 역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지를 받았다. 우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묘사하는 동성애자가 주인공인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존재한다(Schiappa et al., 2005). 또한, 한국인의 미국 드라마 시청이 미국인과 미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heongmi Shim et al., 2012). 이 연구에서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한국인은 미국인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행동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 사회적 접촉가설은 미디어효과 이론 중 하나인 문화계발(cultivation)이론과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계발 이론은 텔레비전의 중 시청자는 사회 현실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텔레비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 배양효과의 핵심이다(Gebner, Gross, Morgan, Signorielli, & Shanahan, 2002). 비록 문화계발효과이론이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 유형에 한정된 이론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서의 미디어의 영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준 사회적 접촉가설과 상당한 교집합을 형성한다. 대중 미디어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해 상징적 현실을 제공함으로써 또는 정보적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인식, 감정, 태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양혜승, 2011).

중국인의 미디어 이용이 한국에 대한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한류 연구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서적 등 한국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중국인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감정도 영향을 받으며, 다시 이러한 인지적 요소들과 감정 등 정서적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가 대표적이다(이준웅, 2003; 이준웅 2006).

하지만 다른 문화권 인물들과의 준 사회적 접촉 또한 긍정적인 태도만을 유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에 노출될 경우 부정적 고정관념(stereotype)이나 부정적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Brown Givens & Monahan, 2005). 소수자 집단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이고 제한된 묘사는 부정적인 태도를 초래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Mastro, 2009). 우와 도미니크(Woo & Dominick, 2003)의 연구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학생의 경우, 토크쇼를 많이 시청하는 외국인 대학생은 미국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주간 토크쇼 프로그램들이 섹스, 학대, 약물중독, 범죄행위, 가족갈등 등의 부정적인 주제를 빈번하게 다루며 그 내용들은 대체로 왜곡되고,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것들이 과대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미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배양한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 미디어 이용이 빈번하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부정적인 묘사에 노출될 경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제1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더불어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시간과 인터넷 이용 시간으로 구분하고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로서 한국인 또는 중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연락 횟수를 포함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측면 뿐 만 아니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측면인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여 각각 개념화 한 후,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및 연구문제별 설정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미디어 이용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국 미디어 이용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국인들과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2: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인들과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과【연구문제 2】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 중

【연구문제1】은 탐색적인 수준에서 중국 미디어 이용과 한국 미디어 이용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것이고 【연구문제 2】는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같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주 대화 할수록 미디어가 편향되게 보도한다고 인지하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증가하는 반면, 이질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아 질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연구문제 3】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미디어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2: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국 미디어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인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2: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국인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과 【연구문제 4】 는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등 커뮤니케이션 변인은 새로 적응할 문화와 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 집단의 미디어 이용이 그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만을 유인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미디어에서의 부정적 묘사에 노출될 경우, 고정관념이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용하는 미디어가 중국 미디어인지, 한국 미디어인지, 그리고 이용하는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즉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과 인터넷 이용에 따라 한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대인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불안과 갈등 역시 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자주 대화하고 연락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한국인인지 아니면 중국인인지, 또한 그들에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 정도의 차이는 한국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연구문제 5】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5】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와 반한 감정의 형성 원인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반한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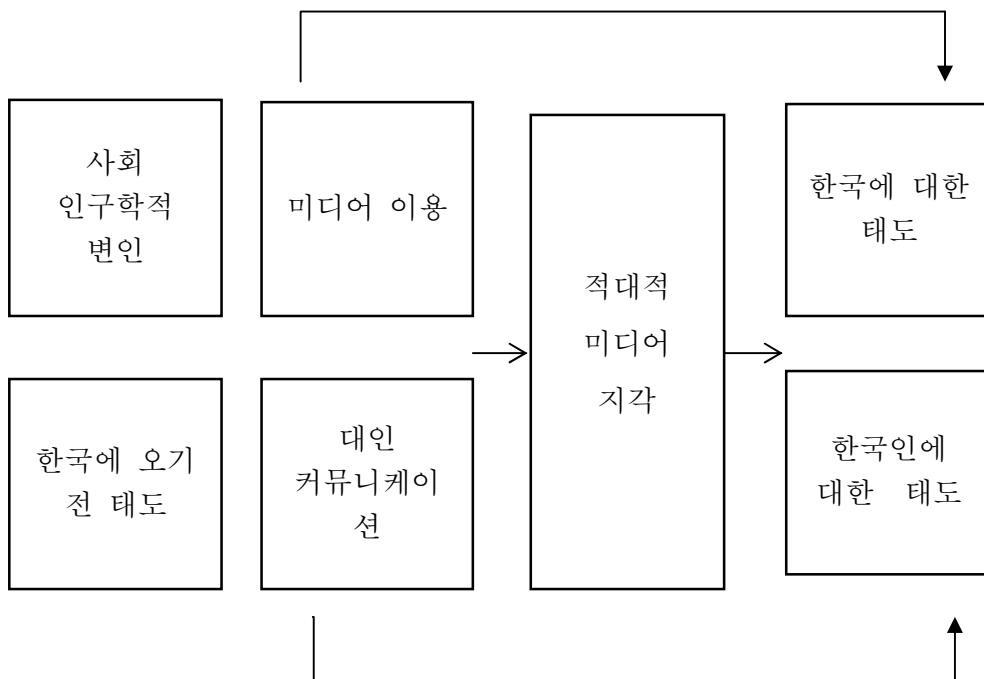
제2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더불어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반한 감정의 원인을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효과와 관련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종속변인인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커뮤니케이션 변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상의 가외 변인을 통제한 후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각각의 종속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델은 <그림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는데, 중국인 유학생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시간, 인터넷 이용 시간 등 미디어 이용시간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인 연락 횟수와 대화 횟수, 그리고 대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가능하며 한국과 한국인

에 대한 태도 역시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림1> 본 연구의 모형



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해 미디어 이용 시간과 대인커뮤니케이션 행동,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지각과 한국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다. 설문응답자로는 재학중이거나 이미 졸업한 중국인 유학생을 선정하였는데 졸업생 중 이미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본 설문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어가 서툰 일부 유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지는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 두 가지로 제작하였다. 한국어 설문지를 먼저 만든 후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1차 번역작업은 다섯명의 중국인이 수행하였다. 이후 연구 전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연구자가 이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1차 번역작업 참가자와 논의해 2차 번역에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 중국어 설문지를 완성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인터넷 설문인 경우 조사의 편의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예: renren.com, weibo.com 등)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하는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모임(축

구 동아리)과 서울여대 어학원의 협조를 구해 한국어 수업을 수강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사람과 연구자의 지인들에게 부탁해 다른 응답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 (snowballing sampling method)을 이용해 추가적으로 응답자를 모집했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총 6페이지로 구성되었고 설문 응답엔 평균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조사는 2012년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었고 설문지는 온라인 138부, 오프라인 220부로 총 358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응답의 성실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4부를 제외한 354부¹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제2절 주요 변인의 구성과 측정

가설검증에 필요한 변인들 중 미디어 이용 변인을 구성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시간과 인터넷 이용 시간은 개방형 질문으로 측정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측면을 구성하는 면대면 대화 횟수와 매체를 통한 연락 횟수도 개방형 질문으로 측정했다. 응답 결과 중 발견된 극단치가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응답결과의 분포를 살펴본 후, 같은 간격으로 구분한 서열척도로써 새롭게 구성해 분석에 이용하였다. 기타 단일 항목으로 측정할 수 없는 변인은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문항 척도를 구성한 후 평균을 구하는 지수화

¹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 및 지방의 38개 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고 최종 지수를 구성하였다.

1.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량

본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량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용시간과 인터넷 이용 시간만을 포함한다.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 인쇄매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한국 미디어 역시 종이 신문이나 잡지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쇄매체는 측정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가장 주요한 미디어 이용 활동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과 인터넷 이용 시간을 측정하였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드라마, 예능, 스포츠 프로그램, 시사 정보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다. 유학생의 여건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텔레비전 수상기 외에도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말기에 관계없이 미디어 이용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 미디어와 한국 미디어 이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미디어 이용 시간과 중국 미디어 이용시간을 각각 분리해서 측정하였다.

1)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용 시간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용 시간은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 등 단말기에 관계 없이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한 후 일률적으로 분 단

위로 환산했다. 극단치가 응답 결과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측정 결과의 분포를 살펴본 뒤, 이를 '0분(1점)'부터 '180분 이상(6점)'까지 45분 간격의 6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2)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시간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 단말기에 관계 없이 하루 평균 한국 인터넷과 중국 인터넷의 평균 이용 시간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한 후, 이를 일차적으로 분 단위로 환산했다. 극단치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측정 결과를 살펴 본 뒤, '0분(1점)'부터 '180분 이상(6점)'까지 45분 간격의 6점 척도로 응답 결과를 재구성하였다.

2.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본 연구에서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두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한국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1)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측면

중국인 유학생의 양적인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하루 평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횟수와 전화/문자, 메시지/이메일/메신저와 같은 매체를 통해 연락하는 횟수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결과의 극단치

가 연구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 결과를 살펴본 뒤 '0회(1점)부터 '10회 이상(6점)까지 3회 간격의 6점 척도로 재구성해 활용하였다.

2)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측면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으로 부터 받는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측면의 도움 정도를 알아보고자 민영(2012)이 제시한 5개의 문항을(<표4-1> 참조)이용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항목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72로 나타났고 최종 5개 문항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변인 값으로 활용하였다(M=4.42, SD=1.11).

<표4-1> 한국인에의 정서적 지지 측정문항

-
- 1) 나는 한국인에게서 따뜻함을 느낀다.
 - 2) 나는 한국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 3) 한국인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 4) 한국인은 내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
 - 5) 한국인은 내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

Cronbach's $\alpha = .872$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측면의 도움 정도를 알아보고자 위에서와 같은 5개 문항으로써 역시 리커트형 7점 척도 형태로 측정하였다 (<표4-2> 참조). 항목 간 신뢰도 (Cronbach's α)는 .920로 나타났고 최종 5개 문항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변인 값으로 활용하였다(M=5.21, SD=1.24).

<표4-2> 중국인의 정서적 지지 측정문항

-
- 1) 나는 중국인에게서 따뜻함을 느낀다.
 - 2) 나는 중국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 3) 중국인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 4) 중국인은 내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
 - 5) 중국인은 내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

Cronbach's $\alpha = .920$

3. 적대적 미디어 지각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소수자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민영, 2012; Tsfat, 2007; Tsfat & Cohen, 2005), <표4-3>과 같이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고 측정 항목들 간 신뢰도

(Cronbach's α)는 .930로 나타났으며 최종 4 개 문항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변인 값으로 활용하였다(M=5.10, SD=1.31).

<표4-3> 적대적 미디어 시각의 측정 문항

-
- 1) 한국의 미디어는 중국 또는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 2) 한국의 미디어는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 3) 한국의 미디어는 중국 또는 중국인을 나쁜방향으로 묘사한다.
 - 4) 한국의 미디어종사자는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것이다.
-

Cronbach's $\alpha = .930$

4. 한국에 대한 태도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1) 한국에 대한 태도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표4-4>의 4개 문항에 동의하는 바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7점)” 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27로

나타났고 최종 4 개 문항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변인 값으로 활용하였다 (M=4.44. SD=1.20).

<표4-4> 한국에 대한 태도의 측정문항

-
- 1) 내가 한국에 온 것은 잘한 선택이다.
 - 2) 나는 한국이 마음에 든다.
 - 3)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 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말하고 싶다.
-

Cronbach's $\alpha = .827$

2) 한국인에 대한 태도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의미분별 (Semantic Differential)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인을 묘사하는 8쌍(16 개)의 상반되는 형용사들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각 쌍의 용어가 한국인의 특징을 얼마나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구체적인 용어는 '불성실하다(1점)-성실하다(7점)', '불친절하다-친절하다', '신뢰할 수 없다-신뢰가 간다', '거만하다-겸손하다', '교양 없다-교양 있다', '무례하다-예의 바르다', '배타적이다-포용력이 있다', '속이 좁다-너그럽다'이다. 최종 8 개 항목 간 신뢰도는(Cronbach's α) 는 .884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변인 값으로 활용하였다(M=4.22. SD=1.07).

5. 한국에 오기 전 태도

통제 변인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오기 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표4-5>에 나타난 4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원래 설문조사에서는 총5개 문항을 이용했으나 '나는 졸업 후 한국에 남을 계획이다'라는 문항이 항목 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배제하고 최종 4개 문항의 평균치를 산출해 변인 값으로 활용하였다(M=4.24, SD=1.10). 이들 항목들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07로 나타났다.

<표4-5> 한국에 오기 전 태도의 측정문항

-
- 1) 한국에 가고싶다
 - 2) 한국은 선진국일 것이다.
 - 3) 한국인은 친절할 것이다.
 - 4) 한국에서의 생활을 동경한다.

Cronbach's $\alpha = .807$

제3절 자료분석 방법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²

첫째, 제시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둘째, 연구가설과 연구문제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방법(hierarchical analysis)을 사용했다.

² 본 연구에 이용된 모든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통계 패키지 소프트웨어인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였다.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주요변인에 대한 검토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검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국인 유학생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본의 성별, 민족, 연령, 소득수준, 유학기간 등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중국인 유학생의 남녀구성비는 42%(149명) 대 58%(205명)로 나타났다. 민족은 한족, 조선족 및 기타 민족이 각각 62.1%(220명), 35.9%(127명), 2%(7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은 중중 수준이 63.6%(225명)로 가장 많았고 중하에서 중상까지 전체 응답자의 94.3%(334명)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최소 18세에서 최고 3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약 25세 (SD=3.1) 정도였다. 유학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17개월(9년 9개월)로 조사되었고 평균 유학기간은 32개월(2년 8개월, SD=22.45)로 나타났다. <표 5-1>은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5-1> 중국인 유학생의 성별, 민족, 연령, 소득수준, 유학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기술 통계치 I

변인		빈도	비율(%)		
성별	여성	205	57.9		
	남성	149	42.1		
민족	한족	220	62.1		
	조선족	127	35.9		
	기타	7	2		
소득수준	상류	13	3.7		
	중상	44	12.4		
	중중	225	63.6		
	중하	65	18.4		
	하위	7	2		
합계		354	100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	354	25.32	3.10	18	39
유학기간(개월)	354	32.90	22.45	2	117

<표5-2>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인 유학생이 소속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석사과정 또는 석사졸업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아 약 49.7%(176명)를 차지했다. 박사과정 또는 박사 졸업의 비율은 18.1%(64명), 학부과정 또는 학부졸업은 15.0%(53명)로 나타났다. 7.1%(25명)의 응답자는 교육과정을 기입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을 살펴보면 51.7%(183명)가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약간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34.5%(122명),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10.7%(38명), 한국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응답자는 3.1%(11명)였다.

**<표5-2> 중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과 한국어 능력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기술 통계치 II**

변인	빈도	비율(%)	
교육과정	박사재학·졸업	64	18.1
	석사재학·졸업	176	49.7
	학부재학·졸업	53	15.0
	어학재학·졸업	36	10.2
	무응답	25	7.1
한국어 능력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83	51.7
	약간 어려움을 느낀다	122	34.5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낀다	38	10.7
	거의 불가능하다	11	3.1
합계	354	100	

2. 미디어 이용에 대한 검토

본 연구에서 조사된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량의 기술통계치는 아래 <표5-3>에 제시한 것과 같다.³ 중국인 유학생의 하루 평균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시간은 101.24분(약 1시간 41분, SD=92.85),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시간은 79.35분(약 1시간 19분, SD=83.19)으로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약 22분 정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인 유학생의 하루 평균 텔레비전 프로그램 총 시청 시간은 177.93분(약 2시간 58분, SD= 130.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2011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통해 밝힌 한국인 미디어 이용자의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인 177.0 분(약 2시간 57분)과 비슷한 수치다.

인터넷이용 시간은, 한국 인터넷의 경우, 하루 평균 106.01분(약 1시간 46분, SD=112.55), 중국 인터넷의 경우 하루 평균 130.45분(약 2시간 10분, SD= 106.53)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터넷을 한국 인터넷보다 하루 평균 36분 정도 더 많이 이용하는 셈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총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233.05분(약 3시간 53분, SD=151.28) 정도였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2011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 미디어 이용자의 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79.2분(약 1시간 19분)이었다. 중국인 유학생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한국인 미디어 이용자보다 약2시간 34분 정도 긴 것인데, 이는

³ 354 부의 설문지 중, 미디어 이용 항목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 부의 설문지는 배제한 후 최종 352 부를 미디어 이용변인을 포함한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유)학생이 일반인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별 이용패턴과 관련한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표5-3> 참조),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하루 평균 46분(SD=46.85)의 시청 시간을 기록한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오락으로 약 37분(SD=46.42)의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 시간이 가장 짧았는데, 하루 평균 약 19분(SD=23.36) 정도였다.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별 이용패턴의 경우, 드라마 시청 시간이 약 32분(SD=43.33), 오락프로 시청 시간은 약 24분(SD=32.37), 뉴스 시청 시간이 약 23분(SD=45.1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드라마의 경우,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중국 드라마 시청 시간보다 약 15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오락 프로그램 역시 한국 오락 프로그램을 하루 평균 13분 정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뉴스 프로그램은, 중국 뉴스 프로그램을 한국 뉴스 프로그램보다 5분 정도 더 길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 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텔레비전 시청시간	한국 TV	드라마	0	240	45.91	46.85
		오락	0	360	36.53	46.42
		뉴스	0	162	18.80	23.36
		소계	0	600	101.24	92.85
	중국 TV	드라마	0	273	31.43	43.33
		오락	0	192	24.04	32.37
		뉴스	0	540	23.87	45.16
		소계	0	700	79.35	83.19
	총 TV 시청 시간		0	840	177.93	130.36
	인터넷 이용 시간	한국 인터넷 이용 시간	0	780	106.01	112.55
중국 인터넷 이용 시간		0	600	130.45	106.53	
총 인터넷 이용 시간		0	780	233.05	151.28	

3.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검토

본 연구에서 조사된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술통계치는 <표5-4>에 제시한 것과 같다.⁴ 응답자들이 하루 평균 한국인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횟수는 평균 7.1(SD=9.04)회였으며, 중국

⁴ 354 부의 설문지 중, 대인커뮤니케이션 항목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8 부의 설문지는 배제한 후 최종 316 부를 대인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포함한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인과의 대화 횟수는 평균 6.8(SD=8.64)회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하루 평균 한국인과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와 같은 매체를 통해 연락하는 횟수의 경우에는 한국인과는 평균 5.3(SD=7.89)회, 중국인과는 대략 7.9(SD=8.52)회로 중국인과 더 많이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측면, 즉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느끼는 정서적 지지 정도는 한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가 약 4.4(SD=1.11), 중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가 약 5.2(SD=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은 대체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고, 도움을 준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중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가 한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5-4>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	316	.00	50.00	7.13	9.04
한국인과의 연락 횟수	316	.00	80.00	5.29	7.89
중국인과의 대화 횟수	316	.00	50.00	6.83	8.64
중국인과의 연락 횟수	316	.00	50.00	7.92	8.52
한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	354	1.00	7.00	4.42	1.11
중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	354	1.00	7.00	5.21	1.24

4.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검토

중국인 유학생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 정도는 7점 척도에서 평균 5.1(SD=1.31)인 것으로 나타나 중간값인 4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어 응답자들이 한국 미디어가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해 왜곡된 시각과 편견을 갖고 보도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라 적대적 미디어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민족에 따른 적대적 미디어 지각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M=5.37, SD=1.32)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 정도가 한족(M=4.94, SD=1.29)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t(df)=2.97, p<.01$).

제2절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5-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변인으로 제시된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한국에 대한 태도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연령 및 한국어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r = .104, p < .05$; $r = .225, p < .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한국에 대한 태도와는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태도는 연령과 한국에 오기 전 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r = .127, p < .05$; $r = .474, p < .001$)를, 가정소득과는 부적 상관관계($r = -.130, p < .05$)를 보였다. 한국인에 대한 태도의 경우에는,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태도와의 관계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154$, $p < .01$)를 보였다.

<표5-5> 중국인 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N=352)

	1	2	3	4	5	6	7	8
1. 연령	-							
2. 한국어 능력	.332**	-						
3. 한국에 오기 전 태도	.018	.019	-					
4. 가정소득	-.144**	-.081	-.001	-				
5. 유학기간	.409***	.196***	.018	.018	-			
6. 적대적 미디어 지각	.104*	.225***	-.056	-.079	.081	-		
7. 한국에 대한 태도	.127*	.084	.474***	-.130*	.075	-.084	-	
8. 한국인에 대한 태도	-.001	-.101	.154**	.045	-.043	-.306***	.360***	-

주: 셀안의 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 $\rho < .05$, ** $\rho < .01$, *** $\rho < .001$ (양측검정)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표 5-6>에 제시하였다.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 한국에 대한 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미디어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한국 인터넷 이용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중국 인터넷 이용 시간과는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r = -.128, p < .05$; $r = -.149, p < .01$)를 나타냈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연락 횟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연락 횟수와는 부적 상관관계($r = -.130, p < .05$; $r = -.136, p < .05$)에 있었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측면인 정서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인에게서 받는 정서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관계($r = -.175, p < .001$)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에게서 받는 정서적 지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디어 이용 시간과 한국에 대한 태도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시간은 한국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r = .119, p < .05$)를, 중국 인터넷 이용 시간과는 부적 상관관계($r = -.190, p < .001$)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 시간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r = -1.69,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한국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한국인과의 연락 횟수 모두 한국에 대한 태도와 정적($r = .168, p < .01$; $r = .154, p < .01$)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연락 횟수는 한국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의 질적 측면의 정서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 정도는 한국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한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 정도는 한국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512, p < .001$).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연락 횟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중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중국인과의 연락 횟수는 각각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r = -.121, p < .05; r = -.135, p < .05$)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의 질적 측면인 정서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는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한국인의 정서적 지지는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r = .501,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한국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한국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r = .501, p < .001$)를 나타냈다.

〈표 5-6〉 중국인 유학생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및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N= 3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한국 TV	-												
2. 중국 TV	.222***	-											
3. 한국 인터넷	.323***	-.045	-										
4. 중국 인터넷	.043	.441***	.063	-									
5. 한국인 대화	-.019	-.146**	.233***	-.180***	-								
6. 한국인 연락	.086	-.075	.353***	-.149**	.614***	-							
7. 중국인 대화	.122*	.268***	.006	.232***	.269***	.168**	-						
8. 중국인 연락	.037	.152**	.025	.198***	.251***	.223***	.644***	-					
9. 한국인 정서 적 지지	.054	-.025	-.017	-.030	.158**	.106*	.061	.142**	-				
10. 중국인 정서 적 지지	-.035	.080	-.181***	.033	-.010	-.152**	.090	.038	.290***	-			
11. 최대적 미디어 어 지각	-.075	-.128*	.102	-.149**	-.130*	-.136*	.104	.011	-.175***	.096	-		
12. 한국에 대한 태도	.119*	-.098	.085	-.190***	.168**	.154**	.081	.032	.512***	.078	-.084	-	
13. 한국인에 대 한 태도	.018	.020	-.169***	.015	.053	.049	-.121*	-.135*	.501***	.056	-.306***	.360***	-

주: 셀안의 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 $\rho < .05$, ** $\rho < .01$, *** $\rho < .001$ (양측검정)

제3절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논의

1. 【연구문제1】 과 【연구문제2】 의 분석 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1】 과 【연구문제2】 는 중국인 유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1】 은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량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다. 이에 대해 연구문제 두 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각각 중국인 유학생의 중국 미디어 이용량과 한국 미디어 이용량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문제 2】 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다. 이에 대해 연구문제 두 개를 설정하였는데,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간의 대인커뮤니케이션과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간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소득수준)과 한국어 능력, 유학기간, 한국에 오기 전 태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커뮤니케이션 변인 중 미디어 이용 변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구분한 뒤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미디어 이용 변인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시간과 인터넷 이용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은 또한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한국인 및 중국인과의 대화횟수와 연락횟수로써 양적 측면을, 한국인의 정서적 지지 정도와 중국인의 정서적 지지 정도로써 질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형1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 변량의 6.7%만 설명하였으나,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투입한 모형2는 17.6%의 설명력으로써 종속변인 변량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영향이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표5-7>에 나타나 있듯,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형 1에서 한국어 능력($\beta = .239$)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t=4.15, p < .001$).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량 변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투입한 모형2에서는 한국어 능력($\beta = .141$)의 효과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209, p < .05$). 즉,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를 더 잘할수록 한국 미디어가 중국 또는 중국인을 더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보도한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유학생일수록 한국 미디어에 대한 내용을 더 잘 파악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 보도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커뮤니케이션 요인 중 미디어 이용 변인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미디어 이용 변인인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한국 인터넷 이용, 중국 인터넷 이용 중 어느 것도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미디어를 얼마나 많이 접했는지 그 양에 관계없이 부정적이거나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는 보도나 기사를 접했을 경우, 그러한 지각이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로 자리잡게 되어 한국 미디어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 형성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변인 중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양적 측면을 구성하는 변인 중에서는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beta = -.165$)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 = -2.185$, $p < .05$).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가 많을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즉, 한국인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한국 미디어가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질적인 대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 효과를 완화시켜 준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Eveland & Shah, 2003).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량이 늘어날수록 미디어에 대한 편향된 지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방향성만 판단되었을 뿐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측면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정서적 지지 정도($\beta = -.266$)와 중국인의 정서적 지지 정도($\beta = .238$) 모두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4.476$, $p < .001$; $t = 4.034$, $p < .001$). 한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반면, 중국인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유학생이 가진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인 지인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정보적이고 정서적 지지를 두텁게 얻을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중국인 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정보적이고 정서적 지지를 두텁게 얻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이다.

**<표5-7>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적대적 미디어 시각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모형1	모형2
인구사회학변인		
성별	.028	.017
연령	.002	-.051
한국어 능력	.239***	.141*
가정소득	-.044	.000
유학기간	.015	.036
한국에 오기 전 태도	-.062	-.013
대인커뮤니케이션 I (대화)		
한국인과의 대화		-.165*
한국인과의 연락		.106
중국인과의 대화		.082
중국인과의 연락		.111
대인커뮤니케이션 II (정서적 지지)		
한국인		-.266***
중국인		.238***
미디어 이용량 변인		
한국 TV 시청		-.053
중국 TV 시청		-.014
한국 인터넷 이용		.032
중국 인터넷 이용		-.094
전체R ²	.067***	.176***
ΔR ²	.067***	.109***

주: 셀 안의 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 ρ < .05, ** ρ < .01, *** ρ < .001(양측검정)

2. 【연구문제 3】 , 【연구문제 4】 , 【연구문제 5】 의 분석결과 및 논의

【연구문제3】 , 【연구문제4】 는 중국인 유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 3】 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다. 이에 대해 중국인 유학생의 중국 미디어 이용과 한국 미디어 이용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 알아보기 위한 세부 연구문제 두 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4】 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이에 대해서도 한국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중국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각각 중국인 유학생이 가진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두 개의 세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5】 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상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6개의 통제변인, 미디어 이용량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예측변인으로,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두 차례의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한국에 대한 태도가 종속변인인 위계적 회귀분석의 경우,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형1은 한국에 대한 태도변량의 24.4%를 설명하였고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투입한 모형2는 42.3%의 설명력을 보여 종속변인 변량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적대적

미디어 지각 요인까지 투입한 모형3은 42.4%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의 증가량이 미미했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 중에서 가정소득($\beta = -.121$)과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태도($\beta = .464$)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29, p < .05$; $t = 9.471, p < .001$). 다시 말해, 가정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또한 커졌으며,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일수록 한국에 온 후에도 한국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변인인 미디어 이용 변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질적 측면을 투입한 모형 2를 살펴보면, 가정소득($\beta = -.160$)과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태도($\beta = .305$) 둘 다 종속변인인 한국에 대한 태도 변량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대적 기여도(β)가 조금 달라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521, p < .001$; $t = 6.301, p < .001$). 즉, 미디어 이용 변인 중 중국 인터넷이용 시간($\beta = -.168$)만이 유일하게 한국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t = -3.151, p < .01$), 중국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한국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양적 측면에서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beta = .131$)가 유의미했다($t = 2.076, p < .05$). 한국인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한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질적 측면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인 중, 한국인에게서 받는 정서적 지지($\beta = .425$)는 한국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t = 8.527, p < .001$). 즉, 한국인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한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투입한 모형3에서 통제변인 중 가정소득($\beta = -.160$)과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태도($\beta = .305$)가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2에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518$, $p < .001$; $t = 6.286$, $p < .001$). 이는 가정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의 각종 시설이나 발달된 정도가 중국에 있을 때와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유학 온 학생들은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학생들에 비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 이용 변인인 중국 인터넷 이용 시간($\beta = -.171$) 또한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의 상대적 크기가 약간 증가했고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 = -3.191$, $p < .01$). 반면,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인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beta = .126$)가 미치는 영향은 모형 2에서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통계적 유의도는 유지되고 있었다($t = 1.979$, $p < .05$). 대인 커뮤니케이션 질적 측면인 한국인에게서 받는 정서적 지지 정도($\beta = .416$) 역시 영향력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 = 8.094$, $p < .001$).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변인과 기타 한국어 능력 등 변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통제한 후 적대적 미디어 지각의 크기가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형1은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4.4%만 설명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변인인 미디어 이용량 변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투입한 모형2는 31%를 설명함으로써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

가가 나타났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투입한 모형3은 34.4%의 설명력을 보였는데, 설명력의 증가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beta = -.132$)과 한국에 오기 전 태도($\beta = .152$)가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264, p < .05$; $t = 2.766, p < .01$). 한국어를 잘 할수록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으며,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태도가 좋을수록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량 변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투입한 모형2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태도가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커뮤니케이션 변인 중 미디어 이용량 변인의 일종인 한국 인터넷 이용량($\beta = -.234$)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830, p < .001$). 다시 말해,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양적 요인인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연락 횟수, 중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연락 횟수 모두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적 측면의 요인인 정서적 지지 정도는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에게서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beta = .518$) 한국인에 대한 평가도 높았던 반면, 중국인들에게서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지지를 두텁게 받는다고 생각할수록($\beta = -.146$) 한국인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t = 9.508, p < .001$; $t = -2.705, p < .01$).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 변인 등과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통제한 모형3을 통해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 모델에서 인구사회학 변인과 한국어 능력 등의 통제변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미디어 이용량 변인 중에서는 한국 인터넷 이용($\beta = -.227$)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었다($t = -3.811, p < .001$).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 중 질적 측면인 한국인의 정서적 지지($\beta = .464$)의 영향 또한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유의미했다($t = 8.448, p < .001$). 반면 중국인의 정서적 지지 정도의 효과는 방향성만 유지되고 있을 뿐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반면,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beta = -.203, t = -3.966, p < .001$). 다시 말해,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미디어가 중국 또는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왜곡해 묘사한다고 지각할수록 한국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한국인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표 5-8> 미디어 이용량, 대인 커뮤니케이션, 적대적 미디어 지각
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²

예측변인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인에 대한 태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인구사회학변인						
성별	.017	.013	.014	.007	.018	.021
연령	.078	-.001	-.002	.065	.078	.068
한국어 능력	.032	.021	.025	-.132*	.014	.042
가정소득	-.121*	-.160***	-.160***	.046	.005	.005
유학기간	.032	.062	.063	-.040	-.048	-.040
한국에 오기 전 태도	.464***	.305***	.305***	.152**	.008	.005
대인 커뮤니케이션 I (대화)						
한국인 대화		.131*	.126*		.100	.067
한국인 연락		-.040	-.037		.014	.036
중국인 대화		-.018	-.015		-.046	-.029
중국인 연락		-.002	.001		.043	.065
대인 커뮤니케이션 II (정서적 지지)						
한국인		.425***	.416***		.518***	.464***
중국인		-.091	-.084		-.146**	-.098
미디어 이용량 변인						
한국 TV 시청		.041	.039		.044	.033
중국 TV 시청		-.032	-.032		.006	.003
한국인터넷		.041	.042		-.234***	-.227***
중국인터넷		-.168**	-.171**		.046	.026
적대적 미디어 지각			-.031			-.203***
전체R²	.244	.423***	.424***	.044	.310***	.344***
ΔR²	.244***	.179***	.001	.044*	.266***	.033***

주: 셀 안의 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 $\rho < .05$, ** $\rho < .01$, *** $\rho < .001$ (양측검정)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반한 감정의 원인을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함께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졸업생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소수자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관련 문헌의 검토, 그리고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이 한국에 대한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접촉 가설과 그 확장으로 제기된 준 사회적 접촉 가설에 기반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변인,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한국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한국 및 중국 미디어 이용,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태,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미디어 지각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였고, 이와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커뮤니케이션 변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구분해 각각의 관계를 탐색했다. 전술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탐색하였다.

【연구문제1】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미디어 이용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국 미디어 이용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국인들과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2: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인들과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미디어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2: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국 미디어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인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2: 중국인 유학생들의 중국인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 및 지방 소재의 38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358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된 4부를 제외하고 총 354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한 미디어 이용 시간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횟수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답한 응답자는 미디어 이용 변인과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포함한 연구문제의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자료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제2절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1. 연구문제1에 대한 결론

【연구문제 1】은 중국인 유학생의 미디어 이용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알아보았다.

<연구문제1>에 답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미디어 이용 변인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변인을 추가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미디어 이용량 변인으로 설정한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용, 한국 인터넷 이용,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용, 중국 인터넷 이용 모두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미디어의 보도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미디어 이용량에 관계없이 단 한 건의 보도나 기사에 대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혹은 왜곡된 시각으로 보도한다고 지각할 경우, 한국 미디어 전체에 대한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연구문제2에 대한 결론

【연구문제 2】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따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연구문제1>의 결과와는 달리, 대인 커뮤니케이션 변인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측면인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완화되었다.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측면으로 고려한 한국인의 정서적 지지와 중국인의 정서적 지지 역시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완화되는 한편, 중국

인에게서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3. 연구문제3에 대한 결론

【연구문제 3】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연구문제 3>에 답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태도를 한국에 대한 태도와 한국인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 이용 변인 중, 인터넷 이용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인터넷 이용이 많을수록 한국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인터넷 이용도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한국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연구문제 4에 대한 결론

【연구문제 4】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연구문제4>에 대한 결론은 <연구문제3>의 분석결과를 참고해 도출될 수 있다. 자료분석 결과, 커뮤니케이션 변인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측면인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측면인 한국인의 정서적 지지 정도는 한국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한국인과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으며, 한국인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한국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에게서 받는 정서적 지지는 방향성만 판단되었고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대인커뮤니케이션 요인의 경우에는, 질적 측면인 정서적 지지가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인에게서 받는 정서적 지지가 많다고 느낄수록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정서적 지지는 방향성만 판단되었을 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5. 연구문제5에 대한 결론

【연구문제 5】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연구문제5>에 답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미디어 이용,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한 상황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강하게 느낄수록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디어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되게 보도한다고 생각할수록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6. 종합적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과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반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이용 시간은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미디어의 보도와 관계 없는 수용자의 지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느냐와 상관없이 한국 미디어의 보도나 방송이 왜곡되었다고 느낀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이것이 한국 미디어 전체에 대한 인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어가 능숙할수록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미디어나 방송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가 익숙해질수록 미디어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도 강하게 나타나리라는 점 역시 예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대한 영향을 알아본 결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질적인 의견을 가진 한국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한국 미디어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지각이 감소하는 것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지지 정도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증폭하거나 완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미디어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한국인보다 중국인에게서 정서적으로 더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대적 미디어 지각은 한국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중국인 유학생이 갖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선진 문화와 발달된 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언론이 중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왜곡 보도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데, 한국 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중국을 잘못 인식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즉,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은 미디어 때문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겪은 차별과 무시 역시 한국 미디어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이러한 지각은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며 심각한 경우, 반한 감정으로 이어진다.

넷째, 한국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의 영향을 탐색한 결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용 시간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한 감정이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고 확산 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

르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반한 정서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접한다고 한다(구자역, 2010). 이들은 특히 한국에서 생활하며 겪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접한 반한 정서 관련 정보에 상대적으로 쉽게 동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반한 정서 관련 정보는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감정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2009)에 따르면 '반한 감정'이 한 언론 매체에서 이슈화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환경의 신속한 전파력이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인터넷 이용량이 많을수록 한국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한국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할수록 한국인에 대한 태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 인터넷 이용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중국 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에 대한 루머나 반한 정서를 부추기는 댓글의 요소 때문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인터넷에 강릉 단오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문제, 백두산과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된 루머들이 떠돌면서 중국인들의 적지 않은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이러한 루머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반한 감정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네티즌의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 행태가 반한 정서가 생겨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기존 연구(구자역, 2008)를 상기할 때, 한국 인터넷 이용이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포털 뉴스의 중국 관련 보도가 흥미거리 위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점과 동북 공정 등 역사적 갈등 문제와 사천성 대지진, 연평도 포격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악성 댓글과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의 정도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두텁게 받을수록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전하는 정서적 지지가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닌 반한 감정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인을 자주 만나고 한국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얼마나 많은 정서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느냐가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 지니는 태도를 좌우하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중국인을 무시하는 한국인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적지 않은 반한 정서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구자역, 2008)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3절 본 연구의 의의

최근 재한 중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특히 최근 한중 양국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반한 감정에 주목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라는 현상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감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적대적 미디어 지각 현상이나 그것이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 나아가 소수집단, 특히 중국인 유학생에게

이를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 적응 또는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탐구한 것과 달리(이수범 · 김동우, 2008; 김선남, 2007), 본 연구는 반한 감정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지각'이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인터넷 이용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연구결과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미디어 이용은 한국 또는 한국인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었고, 한국 문화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 이용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감정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 역시 반한 감정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미치는 요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반한 감정을 논할 때, 한국, 즉 국가에 대한 감정과 한국인에 대한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새롭게 발견된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과 대화하는 횟수나 한국인에게서 받는 정서적인 지지

가 미디어 지각과 한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한국인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상쇄하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과의 대화 횟수나 한국인에게서 받는 정서적인 지지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한국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상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아리, 멘토 맺어주기 등 한국인 학생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인 지각을 완화시켜주고 나아가서 반한 감정도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제4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끝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력, 성별, 민족, 출신/재학학교 등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후, 확률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지만 시간, 비용 등 제반 제약조건 때문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표집되었고 학부과정 유학생이 실제 비율보다 다소 적게 표집되었다. 기존 연구(구자역, 2010)에서는 학부과정생 중에서 반한 정서를 갖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학부과정의 유학생을 더 많이 표

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반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의 반한 정서의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증분석과 더불어 심층 면접을 병행했다면 더욱 가치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제시했듯 중국인 유학생의 인터넷 이용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을 중국 인터넷 이용과 한국 인터넷 이용으로만 구분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을 이용동기 혹은 이용 행태에 근거하여 반한 감정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중국인 유학생의 구체적인 인터넷 이용 행태에 따라, 포털 뉴스를 자주 보는지, 인터넷 댓글을 자주 읽는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측정하고, 인터넷을 오락의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또는 학업을 위해 이용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반한 감정을 유발하는 인터넷 요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반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원인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그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관한 탐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듯 대인 커뮤니케이션 요인, 특히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느끼는 정서적 지지는 적대적 미디어 지각과 반한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한국 미디어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의 편향된 시각 문제와 반한 감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내영 (2008). 중국의 향한류 현상 연구. 『중국학연구』, 43, 457-508.
- 곽정래 · 박승관(2006). 새터민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415-439.
- 구자역 (2008). 중국 내 혐한정서 해소와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08-3-1.
- 구자역 (2010). 한·중 양국민간 우호정서 저해원인 연구: 국내체류 중국인 유학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선남 (2007).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46.
- 김주명 (2008.08.27). 베이징올림픽, 그리고 혐한 감정, 『노컷뉴스』, Available.
- 김현주 · 전광희 · 이혜경 (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0호, 105-139.
- 민영 (2012). 이주 소수자의 미디어 이용, 대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적대적 지각.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414-438.
- 박수옥 (2009). 한국 드라마가 중화권에서 흥기하게 된 원인 분석, 『한류한풍연구』, 395-403.

- 서형 (2010). 『재한 중국인의 반한 감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양혜승 (2011). 이주민의 대인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이용이 한국사회의 가치(value)에 대한 인식 및 한국사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181-205.
- 오택섭·박선희·이강형·민영 (2008). 텔레비전 후보자 토론회와 적대적 매체 지각-제17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권 4호, 127-164.
- 오택섭·박성희 (2005). 적대적 매체지각: 메시지인가 메신저인가.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133-166.
- 왕리리 (2012). 『한국 신문에 나타난 중국 관련 뉴스 보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 2002-2010년 중국 관련 뉴스보도 내용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왕천·서상호 (2012). 한국 텔레비전 뉴스의 중국관련 보도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4권, 141-159.
- 윤경우 (2006).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중국 문화정체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22(3), 41-71.
- 이만 (2009). 『중국내 '반한류' 및 '반한 감정'의 형성에 대한 고찰-중국 언론 보도와 네티즌의 반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수범 · 김동우 (2008). 재한 중국인의 문화적응에 관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0, 65-90.
- 이은숙 (2005). 반한류의 성격과 그 대응 방식. 『2005! 한류, 기회와 도전』, 세미나 발제문, 2005년 11월 24일, 한류정책자문위원회.

- 이은주 (2011). 지각된 편향인가 지각인가? 댓글의 내용, 여론에, 대한 인식과 이슈 관여도에 따른 기사의 논조지각. 『한국언론학보』, 55권 3호, 179-198.
- 이준웅 (2003). 한류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한국언론학보』, 47(5), 5-35.
- 이준웅 (2006). 중국의 한류 현상에 대한 ‘매개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효과 모형 검증 연구, 『한국방송학보』, 20(3), 277-323.
- 이창현 (2000).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수용과 문화적응: Q방법론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선호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14권 2호, 151-186.
- 임지혜 · 최정화 (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미디어 영향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405-420.
- 정연구 · 송현주 · 윤태일 · 심훈 (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2), 2011,4, 405-427.
- 조창환 · 성윤희(20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54권 4호, 374-397.
- 한국언론진흥재단(2011). 2011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황치성 (2007). 갈등 이슈에 대한 개인 의견과 특정 신문에 대한 태도가 기사 편향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 권 3 호, 308-327.

2. 외국 문헌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New York: Addison-Wesley.
- Ariyanto, A., Hornsey, M. J., & Gallois, C.(2007). Group Allegiances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Perceiver and the Source.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 266-279.
- Brooke Weberling McKeever, Daniel Riffe & Francesca Dillman Carpentier(2012), Perceived Hostile Media Bias, Presumed Media Influence, And Opinions About Immigrants and Immigration,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77(5), 420-437.
- Brown Givens, S. M., & Monahan, J. L. (2005). Priming Mammies, Jezebels, and Other Controlling Images: An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Mediated Stereotypes of an African American Woman. *Media Psychology*, 7, 87-106.
- Cheongmi Shim · Yan Bing Zhang & Jake Harwood(2012). Direct and Mediated Intercultural Contact: Koreans' Attitudes toward U.S American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3), 169-188.
- Cindy T. Christen, Prathana Kannaovakun & Albert C. Gunther. (2002). Hostile Media Perceptions: Partisan Assessments of Press and Public during the 1997 United Parcel Service Strike. *Political Communication*, 19:4, 423-436.

- Dalton, R. M., Beck, P. A., & Huckfeldt, R. (1998). Partisan Cues and the Media: Information Flows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222–126.
- Eveland, W. P., & Shah, D. V. (2003). The Impact of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Factors on Perceived News Media Bias. *Political Psychology*, 24(1), 101–116.
- Fujioka, Y. (2005). Black Media Images as a Perceived Threat to African Ethnic Identity: Coping Responses, Perceived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Affirmative Ac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9(4), 450–467.
- Gerbner, G., Gross, L., Morgan, M., Signorielli, N., & Shanaban, J. (2002). Growing up with television: The Cultivation processes. In J. Bryant & D. Zillmann (Eds.),
- Giner–Sorolla, R., & Chaiken, S. (1994). The Causes of Hostile Media Judg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2), 165–180.
- Granberg, D. (1993). Political perception, In S. Iyengar & W. T. McGuire (Eds.).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pp. 70–112). Durham, NC: Duck University Press.
- Gunther, A. C. (1992). Biased Press or Biased Public? Attitudes Toward media Coverage of Social Groups. *Public Opinion Quarterly*. (1992) 56(2), 147–167.
- Gunther, A. C., & Christem, C. T., Liebhart, J. L., & Chia, S. C. (2001). Congenial Public, Contrary Press, and Biased Estimates of

- the Climate of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65, 295–320.
- Gunther, A. C. & Janice L. Liebhart (2006). Broad Reach or Biased Source? ecomposing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56, 449–466.
- Hale, N. M. (1997). Effects of age and interpersonal contact on stereotyping of the elderly. *Current Psychology*, 17(1), 28–38.
- Hartmann, T. & Tanis, M. (2012). Examining the Hostile Media Effect as an Intergroup Phenomenon: The role of Intergroup Identification and Status. *Journal of Communication*.
- Harwood. J. (2010). The Contact Space: A Novel Framework for Intergroup Contact Research,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9, 147–177.
- Huge, M. & Glynn, C.J.,(2010). Hostile Media and the Campaign Trail: Perceived Media Bias in the Race for Governor, *Journal of Communication*, 60, 165–181.
- Jhally, S., & Lewis, J. (1992). *Enlightened Racism: The Cosby Show: Audiences and the myth of the American dream*. Boulder, CO: Westview.
- Mastro, D. E & Tropp, L. R. (2004). The effects of interracial contact, attitudes, and stereotypical portrayals on evaluations of black television sitcom character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1(2), 119–129.

- Mastro, D. (2009). Effects of Racial and Ethnic Stereotyping. In J. Bryant & M. B. Oliver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3rd Ed., 325–341). New York: Routledge.
- McAneny, L. (1994, August). Ethnic Minorities View the Media's View of them. *The Gallup Poll Monthly*, 31–41.
- Park, S. Y., Yun G. W., McSweeney, J. H., A. C. Gunther. (2007). Do Third–Person Perceptions of Media Influence Contribute to Pluralistic Ignorance on the Norm of Ideal Female Thinness? *Sex Roles*, 57, 569–578.
- Perloff, R. M. (1989). Ego–involvement and the Third Person Effect of Televised News Coverage. *Communication Research*, 16, 236–262.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May 2006, 751–783.
- Phelan, J., & Link, B (2004). Fear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The Role of Personal and Impersonal Contact and Exposure to Threat or Harm.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3), 123–45 2004.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5).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72, 92–115.

- Schmitt, K. M., Gunther, A. C., & Liebhart, J. L. (2004). Why Partisans See Mass Media as Biased. *Communication Research*, 31, 623–641.
- Stein, R. M., Post, S. S., & Rinden, A. L. (2000). Reconciling context and contact effects on racial attitud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3(2), 285–303.
- Tsfati, Y. (2007). Hostile Media Perceptions, Presumed Media Influence, and Minority Alienation: The case of Arabs in Israel. *Journal of Communication*, 57(4), 632–651.
- Tsfati, Y., & Cohen, J. (2005). Democratic consequences of hostile media perceptions: The case of Gaza settlers. *Th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0(4), 28–51.
- Welch, S., & Sigelman, L. (2000). Getting to know you? Latino–Anglo social contact. *Social Science Quarterly*, 81(1), 67–83.
- Woo, H. J., & Dominick, J. R., Acculturation, cultivation and daytime TV talk show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0, 109–127.
- Vallone, R. P., Ross, L., & Lepper, M. R. (1985).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577–585.

3. 기사자료

김주명 (2008.08.27). 베이징올림픽, 그리고 험한 감정, 『노컷뉴스』,
Available

이은규 (2010.12.13). “한국이 싫어!” 유학생 4명 중 3명이 중국인 뽑
아만 놓고 방치 대학 4년 마쳐도 한국말 안돼 반한 감정만 커
져, 『주간조선』, 2135호, Available

인터넷사이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실: www.immigration.go.kr

◆ 부록 1 < 한국어 버전 설문지 >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언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언론의 중국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 신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귀하의 모든 응답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술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연구 담당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김소영

E-mail: soyoungj67@gmail.com

다음은 귀하가 한국에 오기 전 한국 또는 한국인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번(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번(매우 그렇다)까지 중에서 번호를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1) 한국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한국은 선진국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한국인들은 친절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한국에서의 생활을 동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졸업 후 한국에 남을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귀하의 한국 미디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번(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번(매우 그렇다) 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1) 한국의 미디어는 중국 또는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한국의 미디어는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한국의 미디어는 중국 또는 중국인을 나쁜 방향으로 묘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한국의 미디어 종사자들은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귀하의 텔레비전과 인터넷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먼저 귀하의 텔레비전 이용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1. 귀하는 하루 평균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얼마나 보십니까? (텔레비전 수상기, 휴대전화, 컴퓨터 등 단말기에 관계없음)

() 시간 () 분

2. 귀하가 하루 평균 보시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별 이용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드라마, 영화 ()%

연예 오락(예능)/ 스포츠 ()%

뉴스 및 시사교양 ()%

(100)%

3. 귀하는 하루 평균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얼마나 보십니까? (텔레비전 수상기, 휴대전화, 컴퓨터 등 단말기에 관계없음)

() 시간 () 분

4. 귀하가 하루 평균 보시는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별 이용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드라마, 영화 ()%

연예 오락(예능)/ 스포츠 ()%

뉴스 및 시사교양 ()%

(100)%

★ 다음은 인터넷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하는 하루 평균 인터넷을 통해 한국 웹사이트를 얼마나 보십니까? (컴퓨터, 휴대전화 등 단말기에 관계없음)

() 시간 () 분

6. 귀하는 하루 평균 인터넷을 통해 중국 웹사이트를 얼마나 보십니까? (컴퓨터, 휴대전화 등 단말기에 관계없음)

() 시간 () 분

다음은 귀하의 대인커뮤니케이션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하루 평균 몇 번 정도 직접 한국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까?

() 회

2. 귀하는 하루 평균 몇 번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메신저와 같은 매체를 통해 한국 사람과 연락하십니까?

() 회

3. 귀하는 하루 평균 몇 번 정도 직접 중국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까?

() 회

4. 귀하는 하루 평균 몇 번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메신저와 같은 매체를 통해 중국 사람과 연락하십니까?

() 회

다음은 귀하의 한국인 지인과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번(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번(매우 그렇다)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인들에게서 따뜻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한국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한국인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한국인들은 내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한국인들은 내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귀하의 중국인 지인과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번(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번(매우 그렇다)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국인들에게서 따뜻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중국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중국인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중국인들은 내가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중국인들은 내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귀하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1번(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번(매우 그렇다)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1) 내가 한국에 온 것은 잘한 선택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한국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말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서로 반대의 의미를 지닌 아래 8쌍의 표현 각각에 대해 한국인을 묘사하는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쪽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①번은 ‘매우 성실하다’, ④번은 ‘보통이다’, ⑦번은 ‘매우 불성실하다’를 의미합니다.

1) 성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불성실하다
2)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불친절하다
3)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뢰할 수 없다
4) 겸손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만하다
5) 교양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교양 없다
6) 예의 바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무례하다
7) 포용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타적이다
8)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속이 좁다

끝으로 조사 귀하의 성별, 연령과 같은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3. 귀하는 무슨 민족입니까? (예: 한족, 조선족)

(_____)

4. 귀하는 한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셨습니다?

(_____) 년 (_____) 개 월

5. 귀하는 한국에서 학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셨습니까?

(_____) 년 (_____) 개 월

6. 귀하의 소속 학교와 과정을 적어주십시오.(예.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_____) 학교 (_____) 과정

7. 중국에서 귀하 가정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류 ② 중 상 ③ 중 중 ④ 중 하 ⑤ 하위

8. 귀하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 ②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낀다.
- ③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느낀다.
- ④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 부록 2 < 중국어 버전 설문지 >

关于中国留学生对韩国媒体报道的认知调查

您好！

我是一名传播学在读研究生，负责此次“中国留学生对韩国媒体的认知”的调查研究项目。我真诚地请求您的参与和帮助以完成这次调查研究。您真实的看法和感受，将会作为宝贵的调研数据，并将对媒体研究的领域做出贡献。

您的回答内容将会绝对保密，另外我们向您保证这次调查研究是因学术研究的需要，绝不会用于学术以外的目的。

如果您有任何问题或意见，可以通过下面的邮箱地址联系我。

非常感谢您对这次调查的理解和配合！

2012年 11月

研究员：

首尔国立大学 传播学系 金小铃

E-mail: soyoungj67@gmail.com

以下提问是关于您来韩国之前对韩国以及韩国人的看法。请选择最接近您想法的数字。如果选择 ①，表示完全不同意该观点，如果选择 ⑦，表示完全同意此观点。

	完全 不同意	②	③	④	⑤	⑥	完全 同意
1) 我渴望去韩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韩国是发达国家。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韩国人会很亲切。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向往韩国的生活。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毕业后打算留在韩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以下提问是关于您对韩国媒体的看法。如果选择 ①，表示完全不同意该观点，如果选择 ⑦，表示完全同意此观点。

	完全 不同意	②	③	④	⑤	⑥	完全 同意
1) 韩国媒体描述中国或者中国人时带有否定态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韩国媒体让韩国人对中国和中国人形成不良印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韩国媒体对中国和中国人往不好的方向描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韩国的媒体从业人员对中国和中国人带有偏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以下是关于您的电视节目收看情况和网络使用情况的提问。

★ 首先，了解一下您的电视节目收视情况。

1. 您平均每天收看韩国电视节目的时间是(包括电视,手机,电脑等所有形式):

() 小时 () 分钟

2. 您收看各类型韩国节目的比例是:

电视剧, 电影 ()%

娱乐、综艺、 体育节目 ()%

新闻 ()%

(100)%

3. 您平均每天收看中国电视节目的时间是(包括电视,手机,电脑等所有形式):

() 小时 () 分钟

4. 您收看各类型中国节目的比例是:

电视剧, 电影 ()%

娱乐、综艺、 体育节目 ()%

新闻 ()%

(100)%

★ 以下是关于您的网络使用状况的提问。

5. 您平均每天浏览韩国网站的时间是(包括用电脑,手机等所有形式):

() 小时 () 分钟

6. 您平均每天浏览中国网站的时间是（包括用电脑，手机等所有形式）：

() 小时 () 分

以下是关于您的交际活动情况的提问。

1. 您平均每天与韩国人见面进行对话的次数是？

() 次

2. 通过手机、短信、邮件、聊天工具的方式，您平均每天跟韩国人联系的次数是？

() 次

3. 您平均每天与中国人见面进行对话的次数是？

() 次

4. 通过手机、短信、邮件、聊天工具的方式，您平均每天跟中国人联系的次数是？

() 次

以下提问是关于您对您的韩国朋友和同学（同事）的看法。 如果选择 ①，表示完全不同意该观点， 如果选择 ⑦， 表示完全同意此观点。

	完全 不同意	一般	完全 同意
1) 韩国人让我内心感到温暖。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韩国人值得信赖且依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韩国人会尊重我的人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为了让我更好地适应韩国，韩国人会给我一些必要的信息。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韩国人会给我一些建议，让我更好地适应韩国的生活。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以下提问是关于您对您的中国朋友和同学（同事）的看法。 如果选择 ①，表示完全不同意该观点， 如果选择 ⑦， 表示完全同意此观点。

	完全 不同意	一般	完全 同意
1) 中国人让我内心感到温暖。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中国人值得信赖且依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中国人会尊重我的人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为了让我更好地适应韩国，中国人会给我一些必要的信息。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中国人会给我一些建议，让我更好地适应韩国的生活。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以下是关于您对韩国和韩国人的看法的提问。 如果选择 ①，表示完全不同意该观点，如果选择 ⑦，表示完全同意此观点。

	完全 不同意	一般	完全 同意
1) 我来韩国是正确的选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我喜欢韩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我想继续留在韩国生活。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我想推荐别人也来韩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以下八组形容词中，选择您认为最能描述韩国人的选项。例如，选择①表示‘非常诚实’，④表示‘一般’，⑦表示‘非常不诚实’。

1) 诚实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不诚实
2) 亲切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不亲切
3) 可以信任	①	②	③	④	⑤	⑥	⑦	无法信任
4) 谦虚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傲慢
5) 有教养	①	②	③	④	⑤	⑥	⑦	没有教养
6) 礼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不礼貌
7) 包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排他
8) 心胸宽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心胸狭窄

最后，了解一下您的个人信息。

1. 您的性别是：

- ① 男 ② 女

2. 您的年龄是：

() 周岁

3. 您的民族是：（如：汉族， 朝鲜族）

()

4. 您在韩国居住的时间是：

() 年 () 个月

5. 您在韩国受教育的时间为：

() 年 () 个月

6. 您的所属学校（毕业学校）和学历是：（如， 首尔大学， 硕士在读）

() 大学 ()

7. 在中国您的家庭收入是：

- ① 高等收入 ② 中上等收入 ③ 中等收入 ④ 中下等收入 ⑤ 低等收入

8. 您的韩国语能力是：

- ① 几乎无法正常沟通。 ② 沟通时有一定的难度。
③ 沟通时感到稍微困难。 ④ 可以进行无障碍沟通。

◆ Abstract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Media Use on Chinese Students'

Anti-Korean Sentiment

: Focused on Hostile Media Perception

So Young Kim

Dep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ttending to Chinese student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edia us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Chinese students' hostile media perception, and also examine how Chinese students' communication and hostile media perception influence Chinese students' attitude for Korea and Korean peop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ivided Chinese students' communication into two parts: one is 'the media using amount', and the other is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terms of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and hostile media conception over attitude on Korea, it distinguished the attitudes towards Korea and Korean people, and observe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examination of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study showed the research model and then establish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Research Question 1】 How does the media use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influence hostile media perception?

【Research Question 2】 How does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influence hostile media perception?

【Research Question 3】 How does the media use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influence the attitude on Korea?

【Research Question 4】 How does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influence the attitude on Korea?

【Research Question 5】 How does the hostile media perception influence attitude towards Korea?

To investigate the research questions above,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of survey of 354 Chinese students from 38 universities in south Korea was carried ou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statistically. The results supported the theoretical expectations. Specific analyses were as follows:

It was first found tha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ith Korean people negatively affected the respondents' hostile media perception. In other words, the more the Chinese students contact with Korean people, the less Chinese students perceived the Korean media as hostile toward themselves. Likewise, the respondents get more emotional support from Koreans, the less hostile media perception they perceived. While conversely, they get more emotional support from Chinese people, the hostile media perception increase significantly. Second, the internet use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has negative effects on their attitude towards Korea and Korean people. It showed that the Chinese Internet use negatively influence on their attitude towards Korea, and it also affirmed that the Korean Internet use has negative effect on their attitude towards Korean people. Third, both face-to-face conversations with Korean people and emotional support from Koreans have positive effects on attitude towards Korea and Korean people. Last, hostile media perception of Chinese student negatively affects on attitude towards Koreans.

Study results show that hostile media perception can contribute to the Chinese students' Anti-Korean sentiment. Furthermore, It also showed how the mass media use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ffect hostile media perception over the formation of Anti-Korea sentiment. Based on the finding in this study, countermeasures on reducing Anti-Korean sentiment caused by communication have been put forward.

Key Words: media us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hostile media perception, Anti-Korean sentiment

Student Number: 2010-23986

